



즉시 배포용: 2017년 1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년 시정보고의 37번째 제안서 발표: 갓 졸업한 대학생들이 북부 지역에서 첫 주택을 소유하도록 격려

5백만 달러 규모의 주택보유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갓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주택구매 지원 제공 예정

프로그램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저금리 대출, 착수금 지원과 금융 및 주택 구매 교육 과정 포함

주지사의 도심 활성화 기획을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 변화에 구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갓 졸업한 대학생들이 북부 지역 특히 도심 지역에 남을 수 있게 하려고 새로운 졸업생 주택보유 프로그램(Graduate to Homeownership Program)으로 주택 구매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에는 전국 최고의 대학들이 많지만 많은 북부지역에서는 갓 졸업한 대학생들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이 5백만 규모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주택보유자에게 보조금 지원 저금리 대출, 착수금 지원 및 주택 구매자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졸업 후에 뉴욕 북부지역의 도심 구역에 계속 남아 이 지역의 활성화를 돕게 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부지역의 대학교와 대학원은 세계적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졸업생들을 배양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회를 찾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갓 졸업생들을 장려하여 북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그들의 도심 구역에 젊은 기운을 가져오고 도시 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할 것입니다.”

대도시 지역의 성장과 활성화는 지역 대학과 대학원의 졸업생들과 같이 그 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주민들에 의해 가동하고 유지됩니다. 뉴욕시는 71%의 대학원과 대학교 졸업생들이 이 지역에 남아 전국의 선두에 있습니다. 그러나 로체스터(Rochester), 버펄로(Buffalo) 등 많은 북부 지역 도시들에서 졸업생들을 남기지 못하여 애를 먹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갓 졸업한 대학생들의 첫 주택구매에 추가 지원을 해주어 그들이 북부 지역의 도시 지역과 도시에 남을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과 갓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맞춰 계획되었으며 온라인 혹은 캠퍼스 내 금융 및 주택구매 교육 과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뉴욕주 모기지 대행사(State of New York Mortgage Agency, SONYMA)를 통하여 첫 주택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저금리 대출도 지원합니다. 이 대행사는 지난 6년간 8,000명 이상 뉴욕시민의 주택구매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졸업생 주택보유 프로그램은 기업들을 끌어와서 뉴욕의 다양한 재능있는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을 육성하여 업스테이트 뉴욕(Upstate New York)의 도심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활성화에 필요한 기업 에너지에 무대를 마련해 줍니다. 최초의 5백만 달러 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이 만약 성공하면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심 활성화 계획

이 프로그램은 Cuomo 주지사의 기존의 뉴욕 전역, 특히는 북부지역에 대한 활성화 노력을 보완합니다. 도심 활성화 계획은 1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다음 세대의 뉴욕시민들이 머물러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활기찬 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올해, 주 전역의 10개 커뮤니티에서 1천만 달러의 주 정부 보조금을 수여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장기 성장과 번영할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